

지역 소식통

공덕파출소, 특별 협력치안 '눈길'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 공덕파출소(소장 이정주)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특별한 협력치안을 벌이고 있다.

공덕여성자율방범대는 지난 1월부터 매주 마을회관을 방문해 회관 청소 등 봉사 활동과 함께 어른들 상대로 지역 치안 현황과 경찰 추진 시책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면서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여성 대원들은 화장실 등 건물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회관에 모인 마을 주민들에게 음료를 나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법 등을 설명하고 마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이들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야간 순찰만으로는 완벽한 치안에 한계가 있다며 여성대원의 특성을 살려 봉사활동과 함께 주민들과의 편안한 대화를 통하여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마을주민이 치안에 직접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산불방지인력 발대식

김제시는 6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를 위한 2017년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산불근무자 대표의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결의문 낭독과 시 공무원직과장의 당부사항 전달, 시 관계자의 근무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은 산불방지인력을 대상으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산불방지인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소년유해업소 특별점검

정읍시보건소가 졸업 시기와 학년 말 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 환경 우려 업소인 식품 접객업(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특별지도와 점검에 나선다.

매월 4회 이상 실시될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청소년 고용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유흥 기한 경과 제품 여부 ▲조리장 청결 여부 ▲원료와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2016 기준 사업체조사

김제시는 오는 2월6일부터 3월3일까지 2016년 12월31일 현재 지역 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응답자 요청시 우편조사, 배포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내용은 사업체 기본현황,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을 조사하며 효율적 조사 및 사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기 조사된 행정자료 등을 적극 활용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업보조사업관리 사용자 교육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최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농업보조사업 담당자 120명(농업기술센터 80, 읍면동 40)의 전산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관리, 기타보상관리, 재해복구관리, 교육훈련관리에 관한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과 시스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등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53%)와 시비(47%) 등 모두 25억여원을 들여 정읍사공원 인근 아양산 18ha에 대규모 숲을 조성한다.

정읍시, 아양산 대규모 숲 조성

25억 여원 투입... 유아숲 체험 놀이터·가족 힐링 문화공간 등 들어서

정읍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53%)와 시비(47%) 등 모두 25억여원을 들여 정읍사공원 인근 아양산 18ha에 대규모 숲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테마로 조성돼 도심 속 컴퓨터 자 관광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정읍사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산림공원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양산 산림공원에는 유아숲 체험 놀이터와 가족 힐링 문화공간, 숲속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자연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아양산 일대 편백숲을 이용해 '치유의 숲'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를 낮춘 600m의 무장애 데크길도 개설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사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의견 수렴에서 인근에 어린이 놀이공간과 숲과 함께하는 힐링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응모와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본격적인 사업을 가시화했다. 한편 2014년 새롭게 단장한 정읍사공원은 백제가요 정읍사의 이야기와 잘 어우러진 각종 시설과 야간 경관 조명,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길 등을 갖춘 개방형 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종규 군수 "부안, 강소군 육성 할 것"

생생현장회의서 반값등록금 실현·농본도시 육성과 6차 산업 활성화 등 강조

김종규 부안군수는 "2017년에는 부안군을 강 소군으로 육성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6일 주산면 화봉화훼(대표 김상중)에서 열린 생생현장회의에서 밝혔다. 김종규군수는 "부안군 나누미농장 확대 활성화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 등 인구감소대책을 추진해 사람이 모이는 부안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사상 첫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규 군수는 "농본도시 육성과 6차 산업 활성화, 각 읍면별 앵커 상품 육성을 통해 돈버는 농업을 실현할 것"이라며 "관광산업 육성과 오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자연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아양산 일대 편백숲을 이용해 '치유의 숲'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를 낮춘 600m의 무장애 데크길도 개설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사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의견 수렴에서 인근에 어린이 놀이공간과 숲과 함께하는 힐링공간 마련이

가공, 판매하는 6차 산업 추진업체가 10여 개 있다. 그중 화봉화훼 농가는 국화 1.3ha를 재배해 서울 양재동 화훼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조·가공설비 추가 구축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중 화봉화훼 대표는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미래의 6차 산업을 활성화 하려고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격려금 제도 '호응'

51명 우수인재 선발 7450만원 지급키로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학 교보내기 격려금 제도가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3일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중 관내 고교에 진학하는 51명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7,4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들에게는 성적에 따라 중학교 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에게는 200만 원을, 10% 이내인 학생에게는 150만 원을, 15%이내인 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금성여중 16명, 김제중과 중앙중 각 7명, 덕안중 6명, 용지중과 금산중 각 2명, 만경중 1명으로 해당 중학교 졸업식때 격려금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상임이사인 양운엽 인재양성과장은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첩경이다"고 강조했다. "김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 제도는 첫 시행 해인 2008년부터 올해까지 357명에게 7억 1천 4백 5십만원을 지급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내 진학률을 높이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 제도와 함께 과감한 장학금 제도,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장학재단 설립 초기 63%이던 관내 고교 진학률을 올해 70%까지 끌어 올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다문화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개강

군, 자존감 향상·자립역량 강화 등 위해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취득 지원사업으로 초·중·고졸 검정고시반을 개강한다.

부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력 등 자격조건 미달로 단순노동, 기피업종 취업 등을 반복하며 사회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함께 자존감 향상 및 자립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다 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개별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결혼이주자 7명(중국 1명, 베트남 5명, 몽골 1명)을 대상으로 교육

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과 8월 중 실시 되는 검정고시를 겨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초졸과정 2명과 중졸과정 2명, 고졸과정 3명이 검정고시를 합격해 이중 2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보이며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신장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취업연계, 자녀교육 및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학력 취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로 자립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re are also images of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